

대덕밸리에 수출 대박이 터졌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출 활황과 함께 대덕밸리에서도 월간 수십억원대의 수출 벤처들이 잇따라 탄생하고 있다. 그동안 대덕밸리 벤처업계에서는 아이디스(대표 김영달)같은 기업들이 간간이 '수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여러 기업들이 군(群)을 이뤄 잇따른 수출 신화를 일구는 행진은 드물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대덕밸리 벤처기업의 지난 3월중 수출은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0.7%의 증가세를 보여 올해 들어 가장 가파른 수출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3월까지의 벤처수출 누계액이 3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23.4%를 시현, 총 수출 증가세를 훨씬 능가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쾌거를 올렸다.

대덕밸리 벤처기업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거둔 기업은 LCD 전문 벤처기업 오디티(대표 이일). 오디티는 미국, 중국 등의 급격한 해외에서의 휴대폰 수요증가 덕분에 지난 2월 49억원, 3월 59억원, 4월 50억원 등 매달 4~50억원의 수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여기에 내수 매출액까지 합치면 월 매출액 규모는 5~60억원 대로 늘어난다.

최근 코스닥 황제기업으로 부상한 빛과전자(대표 김홍만) 역시 '수출 대박' 신화를 터뜨리고 있다. 2월 48억원, 3월 43억원 등 월

평균 40억원대의 수출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빛과전자는 서일본NITT항 광송수신모듈의 주문증가로 당분간 고속성장이 예정된 데다가 미국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해빛정보(대표 박병선)는 중국과 일본 등에 월 수출 20억원 규모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4월까지 80억원의 수출실적을 거뒀다. 주문형 디스플레이 생산 전문업체 디앤티(대표 이양규)도 미국 시장 회복기에 힘입어 고속 수출성장을 일궈가고 있다. 매출 80%를 미국, 유럽 등 해외 수출을 통해 올리고 있는 디앤티는 올해 들어 매월 5~7억원에 달하는 수출 실적을 쌓고 있다.

100% 수출에 전념하는 노트북 배터리 팩 외장형 전문업체 에스피에스(대표 김현준)는 미국을 비롯 유럽, 일본 등지로부

터 매달 5~7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의료장비 개발제조 전문업체 포텍(대표 고안수)은 지난 2003년 1월 첫 수출을 시작한 뒤 현재 매달 50만달러의 수출성고를 올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적외선 수신모듈 전문 생산업체인 레이트론(대표 김동철), 다림비전(대표 김동춘), 위월드(대표 박찬구) 등 상당수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대덕밸리 기업들, 수출 '대박'

### 신제품 신기술

## 건국산업, 폭발 가능성 '제로' 가스레인지 출시



대덕밸리 벤처기업 건국산업(대표 박진하)은 터지지 않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파이어'를 개발, 출시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탄가스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중에 불판의 복사열 등으로 인해 용기의 내압이 15kg/cm<sup>2</sup> 이상이 되면 폭발하게 되지만, 이 회사의 '사파이어'는 폭발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용기의 내부 압력이 13kg/cm<sup>2</sup>를 초과하는 순간 압력조절 밸브를 통해 부탄가스 용기 내압을 낮춤으로써 폭발을 방지한다.

이 제품은 기존 가스레인지와는 달리 모든 소재를 불연성으로 제작, 가스레인지가 과열될 때 플라스틱 손잡이가 녹아내려 1차 안전장치 작동을 방해하는 현상을 예방했다. 여기에도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야외에서 사용할 때 바닥의 돌이나 불꽃 튀어나온 흙으로 인해 안전핀이 걸려 작동이 안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레인지 하부 안전핀과 용기이동판에도 보호덮개를 부착했다.

건국산업은 향후 제품의 특징인 안전을 강조하며 마케팅과 홍보활동에 더욱 주력해 국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